



## “운이란 노력하는 자에게 주는 신의 선물”

### 이른 앞둔 조용기 우암학원장 교육 철학집 ‘지금 제대로’ 출간

아흔을 앞둔 원로로 교육자가 꿈과 선택의 기로에 선 젊은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할 책을 펴냈다.

우암학원(남부대·전남과학대·옥과고·우암문화재단) 설립자이자 학원장인 조용기(87) 선생이 최근 60여년 동안 걸어온 교육 와길의 철학을 담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를 출간했다. 이 책은 ‘우공 산을 옮기다’와 ‘달걀이 깨어나 바위를 넘다’에 이은 3번째 인간학 저서이다.

이 책은 ▲꿈나비 꿈을 찾아서 ▲나는 내 인생의 작가다 ▲인생은 함께 떠나는 여행이다

▲세상을 사는 자제 등 4장(89주제, 256쪽)으로 구성, 젊은이들에게 바람직한 인생설계와 삶의 태도 및 실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아프니까 청춘이니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인간으로서 잘사는 것이 무엇인지, 동기부여에서부터 20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철학 갖기를 권하고 타인의 마음을 얻는 법, 우암 성공학, 운이란 노력하는 자에게 주는 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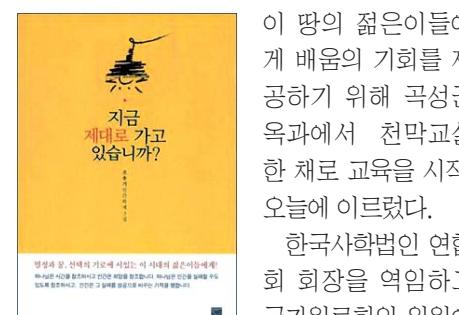
바쁜 외종에서도 틈틈이 메모해 두었던 것을 정리한 이 책은 구순에 다다랐으면서도 늙지 않은 영혼의 숨결이 청춘들과 교감코자 하는 맑은 감성이 돋보인다. 이중 ‘신이 준 선물’이라는 글에서는, 박물관 매그립 전시회인

탐매전(探梅展) 서 보 산중 오두막집에서 편 매화나무 한 그루와 우정에 관한 감상의 글은 선생의 깊은 경지에 도달한 심미안을 엿볼수 있다.

권말의 가슴에 새기고 싶은 말에 적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희망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실패할 수도 있도록 창조하시고, 인간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합니다.”라는 구절은 실의 빠진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다.

노이장을 과시하면서 매주 월·금요일 청춘의 제자들에게 신념과 소신, 철학 세상을 보는 눈 등 따뜻한 시선으로 강의했던 선생의 인생 노트기도 하다.

저자는 전란의 와중이던 지난 1950년 12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곡성군 옥파에서 전막교실 한 채로 교육을 시작,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사학법인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국가원로회의 위원이기도 한 저자는 지난 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학교법인 우암학원은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옥과고등학교, 곡성시니어클럽, 우암유치원 우암어린이집, 우암문화재단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체화증기자 chae@kwangju.co.kr

### 박성수 교수 경영사학회 우수논문상



전남대 박성수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사)한국경영사학회 정기총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수상논문인 ‘병역상인의 역사적 재조명’은 박 교수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들(주희준·이희정·김태준)과 공동 연구해 발표했으며, 이 논문은 개성상인에 비견되는 병역상인의 전통적 가치를 발굴해 학계에 보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는 1986년 창립 이래 전국의 1000여명의 경영학, 경제학 교수들이 기업의 경영행동과 경영자의 활동을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술단체이다.

/체화증기자 chae@kwangju.co.kr



## “신정아 사건, 유일한 시련이자 가장 큰 고비”

### 변양균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후기에 심경 토로

변양균(63)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 “내 생애 유일한 시련이었으며 가장 큰 고비였다”고 밝혔다.

변 전 실장은 10일 그간의 침묵을 깨고 발표한 책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바다출판사 퍼냄)에서 서문과 후기를 통해 이 같은 심경을 토로했다.

그가 2007년 불거진 신정아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소회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인을 포함한 가족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참회’하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변 전 실장은 집필 후기에 해당하는 ‘글을 마치며’를 통해 신정아 사건이 “나의 불찰이고 빼아픈

잘못이었지만, 그 결과가 그리 참혹할 줄 몰랐다는 것이 더 큰 불찰이고 잘못이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어 “내가 가족에겐 말할 것도 없다”면서 “그런데 대통령과 내가 몸담았던 참여정부에 그토록 큰 치명타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신정아 사건이 “정치적 사건으로 그처럼 악용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는 것.

변 전 실장은 신씨를 ‘신정아 씨’라고 지칭하며 “법원에서 신정아 씨와 관련된 문제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이는 “누명과 억측”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정아 사건이 ‘개인적 일’이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하지만 그로 인해 대통령과 국정 운

영에 누를 끼쳤고 참회조차 못한 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변 전 실장은 “사건이 나고 나서 꽤 오랜 기간,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두려웠다”면서 “아내가 아니었다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재기의 뜻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은 2003년 3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지내며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변 전 실장이 노 전 대통령의 경제관과 복지관을 재조명한 책이다.

그는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출간을 계기로 블로그 ‘변양균.com’을 개설하고 시민이 국가 경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창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 인사

#### ◆광주시

◇3급(전보)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노희용  
▲도시디자인국장 이우현 ▲자치행정국장 이병렬 ▲U대학원부본부장 위길환 ▲경제산업국장 문금주 ▲부자교육국장 홍진해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상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 ▲종합건설본부장 백봉기 ▲창조도시정책기획관 정민곤 ▲서구 부구청장 김형수 ▲광산구 부구청장 정선수 ▲U대학원부조위원장 박락진 ▲중앙교육 과관 문운웅, 안치환, 김종효, 송영한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서동진

◇4급 전보 ▲경제 산업정책관 박남언 ▲투자유치지원관 박창기 ▲시의회 총무담당관 윤기봉 ▲동구 부구청장 김효성 ▲정보화담당관 홍남진 ▲법무담당관 박운열 ▲체육진흥과장 장학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준영 ▲식품안전과장 신덕찬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종환 ▲교통정책과장 김집중 ▲건설행정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이

연 ▲U대학원 지원본부 대회지원과장 주남식 ▲소방안전본부 방재관리과장 황봉주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장성수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차재영선 ▲시립미술관 협력관 차동준 ▲시립민속박물관장 이정배 ▲부자유치서울사무소장 박동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과관 정병해 ▲중앙교육 과관 오순희, 허익배, 김애리, 민진기, 이윤숙 ▲아시아문화개발원 과관 김삼철 ▲환경정책과장 이정환 ▲생태하천수질과장 김홍기 ▲도시계획과장 박남주 ▲도시디자인과장 이규남 ▲도시재생과장 안용훈 ▲토지정보과장 최만우 ▲U대학원부본부장 경기시설과장 박득서 ▲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승현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서장 류용민 ▲상수도사업본부 용역점수사업소장 이장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 이종근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 이기수 ▲동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진홍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술담당관 박정식 ▲남구 국장 요원 김정호 ▲광산구 국장 요원 유재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하동룡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강영주

◆전남도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남해안선별트 지원관 직무대리 오재선 ▲인력관리과장 직무대리 박준수 ▲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배유례 ▲해양생물과장 최갑준 ▲의회사무처 김용철 ▲의회사무처 임현식 ▲의회사무처 삼남식 ▲의회사무처 조성필 ▲산림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김현석 ▲전남신용보증재단 파견 백종남 ▲전남인재육성재단 파견 조종현 ▲전남테크노파크 과장 김보환

◇서기관 전보 ▲대변인 조정훈 ▲도립도서관장 최동호 ▲기업유치과장 김연태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행정과장 윤승중 ▲환경정책담당관 전영재 ▲문화예술과장 김영희 ▲농업정책과장 손영호 ▲식품유통과장 명창환 ▲광양반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1부장 정현호 ▲투자개발과장 김범수 ▲녹색에너지지난관 담당관 직무대리 김태환 ▲행복미래파장 정근택 ▲의회사무처 남재희 ▲여성가족과장 신현숙 ▲장애인육아파견 김용 ▲토지관리과장 허성호 ▲수산자원과장 양근석 ▲해양수산과학원장 임여호 ▲공로연수

안용찬 · 박종균 · 이원희 · 김한유 · 명성인 · 이덕부 ▲산림산업과장 박화식 ▲지역계획과장 신태우 ▲도로교통과장 위광활 ▲기후변화지원관 윤순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용철 ▲전남개발공사 과관 김명우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과관 정남래 ▲전남개발공사 과관 장정기 ▲전남발전연구원 과관 김태일 ▲교육 임재영 · 주순선 · 홍영민

#### ◆순천시

◇5급 승진 ▲서면면장 직무대리 김정우

◇5급 전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제전동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 ◆고흥군

◇5급(사무관) 승진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직무대리 서원태 ▲교육과관 팀원주

### 내방

▲신삼식(전남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씨 ▲조정훈(‘생명농업기술과’ 씨).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 학회

#### 향우회

▲재광 장흥향우회(회장 손명재) =13일(금) 오후 6시 30분 평화식당(동구 불로동) 062-226-6226.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236.

▲승관성도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온라인 등)자 및 가족 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프로네 학습증진컨설팅 저소득

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의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사회복지법인 수원실비밀 노인 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꿈을 드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안쪽 관리사무소 062-228-1365(동구자원봉사센터).

▲꿈을 드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안쪽 관리사무소 062-512-5788, 062-262-1542.

▲축구회원=축구를 통해서 친목 도모하고 활기찬 여가운동을 하고자하는 20~50대 축구회원을 모

집, 매주 토요일 오후 운동동 인조구 010-9604-1681(신찬수).

▲문화 축구단회원=북구 문화초등학교 매일 아침 7시 20분 010-8542-3366(이성희).

▲한국노후생애 대안학교 4기 학생=50세 이상 중·장년 퇴직 후 40년을 건강하고 보람있는 생애를 유지하며 자기계발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생애준비. 선학준 30명, 원서접수는 9월(월)~2월 15일(수) 오후 5시까지, 2월 24일(금) 학기 개별통지 062-223-1357.

▲이회술유치원=친환경고급자재 시공(편마나무, 헛속, 경화, 정면, 지면) 062-227-4381.

▲동구자원봉사센터 봉사자=이미용봉사·풍선아트·도서관리·각종 프로그램 진행 가능자 062-228-1365.

▲여름방학 자원봉사프로그램 참가자=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참가자. 인권, 환경 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학습 및 활동, 초

등학생, 청소년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조기축구 회원=운동으로 신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하실분 모집. 문화초등학교 오전 6시~7시 011-

641-0741(손철동)

### 부음

▲김태규씨 별세 서영·후영·주영·신씨 부친상=발인 12일(목)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48.

▲김태규씨 별세 서영·후영·주영·신씨 부친상=발인 12일(목)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48.

▲김태규씨 별세 서영·후영·주영·신씨 부친상=발인